

전시 리서치 광주 찾은 마리아 린드 2016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 “대인시장·전통 한지공예 인상 깊어 지역과 함께하는 전시 선 보이겠다”

광주 문화·미술계 인사들 면담

12월 재방문... 내년 1월 주제 선정

“광주 대인시장 젊은 작가들, 전통 한지 공예 등 남도 문화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세계화와 지역화를 혼합해 지역과 함께하는 전시 주제를 논의하겠습니다.”

마리아 린드(Maria Lind·49) 2016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은 21일 우제길 미술관에서 지역 문화·미술계 인사들에게 광주에 대해 보고 느낀 점을 이같이 밝혔다.

음악과 함께 만찬을 겸한 이번 행사는 마리아 린드 총감독과 국중호 국공미술관장, 나상욱 광주미술협회장, 박상호 조선대 미술대학장, 방선규 아시아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승미 해남행촌미술관장, 이정룡 호남대 미술대학장, 우제길 작가와 김차순 우제길미술관장, 윤만식 민예총회장, 정승규 무등현대미술관장, 정희남 대담갤러리 관장, 조진호 광주시립미술관장, 최규철 광주예총회장, 허달용 민미술협회장 등이 참석해 내년 비엔날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였다.

지난 6월 선임된 마리아 린드는 2개월간 해외 리서치를 한 후 1차 국내 리서치를 위해 지난 18일 입국했다. 작가와 전시 주제를 정하기 앞서 광주 역사와 문화, 한국 미술, 정서를 살펴보기 위한 일정이다.

21일까지 전시 기획과 관련해 광주지역의 역사와 흔적이 담긴 장소를 둘러보면서 광주비엔날레의 개최지이자 태동 배경이 된 광주라는 도시를 알아봤다. 5·18국립묘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구 예술의 거리, 광주극장, 대인예술시장, 양림동 등을 방문하고 지역작가들을 만났다. 특히 2008년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으로 활용되면서 재래시장과 예술의 만남으로 활력이 더해진 대인시장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마리아 린드는 “대인시장 입주 작가들을 만나



마리아 린드 2016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이 21일 광주 우제길미술관에서 문화·미술계 인사들에게 광주에 대해 보고 느낀 점과 내년 비엔날레 기본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보고 그들의 공간을 살펴 본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재래시장과 예술의 만남으로 활성화된 대인시장처럼 지역과 함께하는 미술 전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광주전남귀농학교, 한새봉 두레, 누리봄 커뮤니티센터, 산수다라 등 도시 농업 현장과 보성 녹차밭, 전주 한지 등을 살펴본 뒤 전시 기본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출신 마리아 린드는 2010년 아시아문화전당 국제 워크숍 발제자로 참석하고 2013년 비엔날레 국제큐레이터코스 지도교수를 맡으며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스톡홀름 텐스타 쿤스트홀 디렉터로 활동하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반영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역과 문화가 연계된 시

민참여형 전시를 주로 선보였다.

박양우 비엔날레 대표이사는 “광주비엔날레가 국제적 명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행사를 생각했을 때 마리아 린드 감독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비엔날레는 한 단계 더 성장한 미래 지향적인 예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리아 린드는 24일까지 서울·경기도 등지에서 백남준 아트센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을 방문하고 오는 12월 2차 리서치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마리아 린드는 비엔날레재단과 함께 원탁회의를 통해 내년 1월까지 주제를 정한 후 참여작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 출신 김경욱씨 ‘김승옥 문학상’

1993년 등단... 소설 ‘소년은 늙지 않는다’로 수상

광주 출신 소설가 김경욱(사진)씨가 ‘제3회 김승옥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2일 김승옥 문학상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심사위원회가 최근 응모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김씨의 소설집 ‘소년은 늙지 않는다’를 수상자로 결정했다. 상금은 5000만원이다.

소설가 김경욱은 1993년 작가세계 신인상에 중편소설 ‘아웃사이더’가 당선된 문단에 나왔다. 소설집으로 ‘바그다드 카페에는 커피가 없다’, ‘위험한 독서’,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 장편소설 ‘아르포폴리스’, ‘황금사과’, ‘천년의 왕국’ 등이 있다. 한국일보문학상,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승옥 문학상은 ‘60년대 김승옥의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은 순천 출신 소설가 김승옥의 문학세계를 기리기 위해 KBS 순천방송국이 지난 2013년 제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3일 오후 4시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허영만展 : 창작의 비밀’

11월 29일까지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만화가 허영만 작가의 ‘허영만展 : 창작의 비밀’ 전시가 11월 29일까지 GS칼텍스 예술마루에서 열린다.

허영만 작가는 2014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지도 설문조사에서 약 90%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높은 인지도로 가장 여수 출신 만화가다. ‘타짜’, ‘식객’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작품들이 모두 허영만 작가의 손에서 탄생했다. 웹툰 ‘미생’의 윤태호 작가 역시 허 작가의 문하생 출신이다.

이번 전시는 허 작가가 지난 40년간 그린 14만장의 원화와 5000장이 넘는 드로잉에서 200여 점을 선별해 선보인다. 작품 창작을 위해 끊임없이 기록한 취재노트, 소소한 일상을 만화로 그린 만화일기 등을 공개해 ‘창작의 비밀’이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첫 히트작인 ‘각시탈’을 비롯해 시청률 43%를 기록한 애니메이션 원작 ‘날아라 슈

퍼보드’, 90년대 청춘의 팬덤이자 대중문화의 폭발을 보여준 ‘비트’, 8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타짜’, 4년간의 구상과 2년의 취재 끝에 탄생된 요리 만화 ‘식객’의 캐릭터와 스토리 구성을 만날 수 있다. 또 작품들이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대중 문화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여준다.

허 작가는 고향 여수에 대해 단순히 작품의 배경을 넘어 영감의 매개체이자 창작에 너지 원천이라고 말할 정도로 애정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별히 허 작가가 직접 그린 여수의 대표 먹거리 ‘여수10미’도 공개한다.

특히 전시 기간 동안 허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특강도 4회 진행할 예정이다.

입장료 여수시민 5000원, 타지역 8000원. 문의 061-808-7080.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호남신학대 개교 60주년 기념 연주회

내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호남신학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연주회가 오는 24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음악회의 1부는 교수음악회로 꾸며진다. 한정숙 교수와 소프라노 강양은 교수가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1번’과 장미남 곡 ‘비목’ 등을 들려주며 활양숙(오르간), 박수용(색소폰) 교수도 협연 무대를 갖는다. 2부에서는 하이든의 대작 오라토리

오 ‘천지창조’를 연주한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이자, 호신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임한주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았다.

가브리엘 역의 소프라노 홍선희씨를 비롯해 테너 조효중(무리엘), 바리톤 임해철(라파엘), 메조소프라노 신은정(이브)씨가 솔리스트로 출연하며 호남신학대 음악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호신심포니콰이어와 광주여성필하모니가 함께 협연한다. 전석 초대. 문의 062-650-156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정숙 교수



강양은 교수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월요일 12,500원	8,500원	5,000원
화요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시공면을 깨끗히 물청소하시고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방수! 직접 칠해 주세요**

• 시외 -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비독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80-29